

이왜진? SNL 코리아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교수



1990년대 중반 미국 뉴욕주립대 유학 시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게 쌓인듯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요량으로 토요일 밤이면 익숙한 안주 마냥 즐겨 찾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NBC가 제작 방영하는 SNL(Saturday Night Live)이라는 생방송 버라이어티 코미디 쇼였다.

한국에 있을 적 심오한 사회풍자나 정치비판 프로그램을 거의 접하지 못했기에 그 쇼를 시청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에 나오는 대사처럼 “멋진 신세계”(O brave new world)이자 강렬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당시 우리의 대중문화는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정의한 이른바 ‘공적 영역’(public sphere)에서 국가와 기업, 정치인 등 거대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터부시했던 탓이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재벌가, 정치인, 연예인 등을 막론하고 화제의 인물을 풍자적으로 훑내 내고, 갖가지 사회적 이슈와 모순을 날카롭게 꼬집는 재치와 유머가 참으로 고상하고 멋져 보였다. 여전히 ‘최애 프로’가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2011년 12월 한국판이 소개됐다. tvN이 미국의 포맷 라이선스를 받아 처음 방영한 ‘SNL 코리아’가 그것이다. 현재 쿠팡플레이에서 방영 중인 쇼는 2021년 부활한 리부트 시리즈이다.

SNL 코리아는 미국의 오리지널 코미디쇼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스케치 코미디를 선보이며 국내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사회적 이슈, 정치, 엔터테인먼트 등 폭넓은 주제를 유머와 풍자를 통해 풀어내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최근 시즌에서는 ‘MZ오피스’와

같이 젊은 세대의 현실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큰 공감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코너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짧은 영상으로 재가공되어 젊은 시청자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통쾌함을 전달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즌을 거치며 크루 선정의 독점성, 풍자 소재의 한계, 그리고 선정성 논란 등 여러 비판에 직면한다.

초기 SNL 코리아는 ‘여의도 텔레토비’ 등 정치 풍자를 통해 사회 권력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블랙코미디의 미학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 풍자의 수위가 낮아지고, 풍자 소재가 MZ세대 일상이나 연예계 이슈 등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정치적 구조 문제나 권력 비판 대신, 단편적인 세대 특징이나 연성 이슈에 집중하면서 본래 SNL이 지녔던 ‘풍자 코미디’의 본질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SNL 코리아는 고정 크루와 매주 초대되는 호스트라는 이원적 구조로 진행된다. 일부 시즌에서는 신인 크루의 영입과 기존 멤버의 활약이 명콤비를 이뤘으나, 전체적으로 크루 선정이 비교적 폐쇄적이고 독점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오디션을 통한 일부 신인 영입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역할은 기존 인기 크루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다양한 연기자와 개그맨의 진입 기회를 제한하며,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논란을 자초했던 연예인을 호스트로 기용하면서, 이들의 과오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풍자 없이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 일조한다는 비난도 들려온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등 논란이 있었던 배우를 호스트로 세우면서 해당 이슈를 외면하거나, 셀프 디스 형식으로 가볍게 소비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블랙코미디적 정체성을 퇴색시킨다. 이는 SNL 코리아가 ‘이미지 세탁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SNL 코리아는 19세 이상 시청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수위가 지나치게

높거나 불쾌감을 주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선정성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 여성 연예인에게 노골적이고 수위 높은 연기를 요구하거나, 신체 접촉과 성적 암시가 과도한 장면이 방송되어 민망하고 거슬린다는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연출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성 상품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제작진의 안일한 태도를 드러낸다. ‘정년이’ 패러디 ‘젓년이’, 문채원 ‘갱겨루 연애’, 김사랑 ‘전설의 팬미팅’ 코너 등이 망신스러운 사례들이다.

SNL 코리아는 또한 특정 인물이나 집단의 외모, 말투, 행동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장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풍자가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향할 때 조롱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을 희화화하는 장면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이는 사회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결여된 제작 관행을 드러낸다.

SNL 코리아가 TV에서 주요 개그 프로그램이 사라진 후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사회적 이슈와 세대 문화를 유머와 풍자로 풀어내는 데 기여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크루 선정의 독점 구조와 논란 연예인 기용, 반복되는 선정성 논란은 프로그램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을 크게 훼손한다.

진정한 풍자는 권력과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다양한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 아닌 건강한 비판과 유머로 나아갈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SNL 코리아가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코미디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크루 선정의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 선정성에 대한 자정 노력, 그리고 풍자와 조롱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회적 감수성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늘 그렇듯 음식이나 문화나 어설픈 새 것보다는 원조가 그림다. 그 시절 TV에서 우렁차게 외치는 목소리가 다시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Live from New York, It’s Saturday Night!”

‘지역강점’ 국정 반영 새 정부 성패 달렸다

전남도 핵심현안 등 국정 건의

전라남도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핵심 현안에 대한 국정 건의 과제들을 발굴했다.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 중립, 첨단 산업 육성 등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조심을 잃지 않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기대한다.

10일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 주재로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과제 보고회’를 열고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와 도정 현안 중 국정과제 반영이 꼭 필요한 과제를 비롯해 정책공약, 광역공약, 시군공약 중 전남도 핵심 현안과 연계된 과제와 공약집에는 없지만 국정과제에 반영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으로 104건의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과제는 솔라시도 AI에너지 신도시 조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무안국제공항 동북아 대표 관문 공항 육성,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이 다.

햇도는 광주시 육아정책 예산낭비 아닌가

남성육아휴직 조례 유명무실

광주광역시시의 인구가 14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이다. 더 이상 ‘일자리만 늘리면 된다’는 단선적 접근으로는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없다. 저출생 극복은 일자리 문제만큼이나 핵심 과제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돌봄과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다.

그러나 광주시의 육아정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 조례’다. 해당 조례는 1년 전 제정됐지만, 사업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다. 현재 복구를 제외한 광주시와 4개 자치구는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실행력이 따라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선언에만 그친 조례는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가 중앙정부에 시급한 현안들을 건의한 것은 지역의 당면 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전남도는 104개의 과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 예산과 정책 지원을 확보해 지역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전남의 강점인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를 비롯해 농·축·수산업과 관광 등의 산업은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산업이다. 남해안 철도, 고속도로 확충, 항만 개발 등 지역 SOC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도 크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도 새 정부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전남도가 건의한 과제들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전남도 또한 핵심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정책 방향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전략적인 건의 활동에 나서야 한다. 새정부의 의지에 전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달렸다.

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만 2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아이를 키우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공허하게 흘러가고 있다.

성평등 돌봄 문화 조성과 육아에 대한 공공책임 확대는 조례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연계 프로그램 마련, 돌봄의 지속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출생률 반등은 단기 현금성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돌봄체계를 통해 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광주시의 돌봄정책은 여전히 ‘지원은 있는데 접근이 어렵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실효성이 없으면 결국 예산 낭비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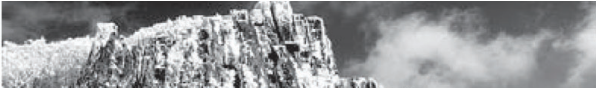
인구감소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광주를 다시 설계할 결정적 시점이다. 육아정책의 공회전이 계속된다면 광주의 미래도 공회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석대

브로드웨이에 오른다는 건 무명의 화가가 루브르에, 이름 없는 연주자가 카네기홀에 선 것과 다름없다.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부, 42번가를 따라 줄지은 극장들은 전 세계 공연 예술인들의 꿈이자 종착지다. 그 무대 위로 오르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성공’으로 여겨지고, 그곳에서 살아남는 작품은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기록된다.

브로드웨이의 역사는 길다. 18세기 말 소극장 몇 곳에서 시작된 이 거리는, 20세기 초 전기 조명과 대형 무대 장치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특히 5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춘 41개의 정식 극장들은 모두 ‘브로드웨이 극장’으로 분류된다. 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선 대본과 음악, 연출, 배우, 프로덕션까지 모든 요소가 혹독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관객의 평가, 언론의 비평, 평론가의 점수는 물론, 업계 관계자들의 신뢰까지 쌓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만큼 브로드웨이 무대는 ‘완성된 예술’만이 설 수 있는 공간이다.

브로드웨이에는 매년 수많은 작품이 오른다. 그중에서도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걸작을 가려내는 시상식이 바로 ‘토니상’이다. 아카데미상(영화), 그래미상(음악), 에미상(방송)과 함께 미국 4대 예술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히는 토니상은 브로드웨이 최고의 영예다. 연극과 뮤



지컬 부문 전반을 아우르며 작품상, 연출상, 작곡상, 무대 디자인 등 세밀한 예술적 성취까지 조망한다.

그런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2025년 6월 8일 한국 창작 뮤지컬이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세계 공연계의 사건으로 기록될 문제의 작품인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은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까지 주요 부문을 휩쓸며 최다 수상작에 올랐다.

이 작품은 2016년 서울 대학로의 약 300석 규모 소극장에서 첫 막을 올렸다.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율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박전후 작가와 윌 애런슨 작곡가가 공동 창작했다. 이후 영어 버전으로 각색돼 뉴욕 맨해튼 벨라스코 극장에서 정식 개막했고, 현지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 속에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브로드웨이는 단지 무대가 아니다. 그것은 문화적 언어이며, 세계가 공유하는 감정의 플랫폼이다. 그런 무대 위에 ‘한국적 감성’을 엮은 K-뮤지컬이 당당히 브로드웨이에서 주연으로 선 것은 K-컬처의 확장판이자, 세계 문화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